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초  
등  
학  
생  
의  
  
음  
악  
  
활  
동  
별  
  
선  
호  
도  
  
및  
  
실  
태  
  
조  
사  
  
연  
구

김  
지  
연

2  
0  
1  
7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생의 음악 활동 별 선호도 및 실태 조사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A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Preference And  
Actual Conditions Survey of Music Activities

-Focused on the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김 지 연

2017년 2월

김 지 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12월

## 목 차

국문 초록 .....	ii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	7
1. 초등학교 고학년의 음악성 발달 .....	7
2. 음악 활동 .....	8
3. 음악선호도 .....	14
III. 음악선호도 및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16
1. 음악 활동간 선호도 및 실태 비교 .....	16
2. 가창 활동 선호도 및 실태 .....	24
3. 기악 활동 선호도 및 실태 .....	33
4. 감상 활동 선호도 및 실태 .....	38
5. 창작 활동 선호도 및 실태 .....	47
IV. 결론 및 제언 .....	50
1. 결론 .....	50
2. 제언 .....	53
참고문헌 .....	54
ABSTRACT .....	56
부 록 .....	58

## 국 문 초 록

### 초등학생의 음악 활동 별 선호도 및 실태 조사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김 지 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치 노

음악은 늘 인간과 함께 해온 친숙한 예술로, 인간은 음악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며 해소하였다. 이는 인간의 정서 안정에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격변기의 아동에게 음악 활동은 필수적이다. 성장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데 음악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동은 학교, 학원,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악을 접하고 있고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음악을 선별하여 선호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올바른 선택과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 대중매체의 영향에 강하게 휘둘려 불균형한 음악선호도를 보일 수 있다. 편협한 음악선호가 계속된 아동은 다양한 음악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이 어떠한 음악을 선호하고 음악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이 시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2차 성장을 경험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음악선호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6학년 학생들의 음악 전반에 대한 호감도와 음악 활동별 선호도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각 활동별 활용 시간, 동기, 선호 장르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 분석, 빈도 분석 하였다. 교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라 선호 음악 활동, 음악 활동에 대한 생각, 곡 유형, 장르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빈도 분석을 통해서도 음악에 대한 흥미, 선호하는 음악 활동, 악기 종류, 감상 기기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서술한 다룰 수 있는 악기, 선호곡은 Excel 2007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음악선호도를 반영한 음악 교육 자료 및 음악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아동에게 좋은 음악 활동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아동이 음악의 가치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성장시키길 바란다.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 시기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동은 이 때 평생을 살기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학습습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한다.<sup>1)</sup>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은 2차 성장을 경험하는데 발생기관의 급속한 발육으로 인해 변성기를 겪거나 또래 집단 활동에 몰두하여 소속감을 갈구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

정신적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아동에게 음악은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음악은 인간의 신체와 정서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 감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자기의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하게 하는 힘이 있다.<sup>2)</sup> 이렇듯 음악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는 음악 교과, 학교 내 동아리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음악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음악 교육을 위해 아동의 특징, 선호하는 음악 장르, 음악 활동별 선호와 활동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짐머만(M. Zimmerman)<sup>3)</sup>에 따르면 만 10세 전후의 아동은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선호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sup>4)</sup>,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이 시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자신이 처한 음악적 환경과 학교 및 종교, 대중매체 등을 통한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선호도를 형성해 나간다. 아동의 선호를 반영한 음악 교육은 아동

1) 김태웅, “대구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음악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쪽.

2) 서승미,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쪽.

3) Marilyn Zimmerman, 인지 발달에 따른 음악적 성장을 연구하였으며 피아제의 보존 원리를 적용하여 어린이의 음악적 사고의 보존 단계를 제시하였다.

4)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6), 53쪽.

의 정서 안정에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흥미와 관심이 높으면 참여도와 교육적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는 아동의 음악 활동별 선호와 실태를 통해 그들의 음악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아동의 음악 문화를 살펴보면 대중음악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각종 정보 통신 기기의 발달로 태어날 때부터 정보 통신 기기와 친숙하였고, 이를 통해 대중음악에만 오랫동안 빈번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이 초등학생의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제쳐두고라도 아동이 지나치게 대중음악에 빠져있지 않은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올바른 선택과 가치판단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지나치게 대중음악에 빠진다면 편협한 음악선호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악 전반에 대한 호감도와 음악 활동별 선호도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계획되었다. 음악 활동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듣기, 음악 만들기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활동별 활용 시간, 동기, 선호 장르 등을 비교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음악 교육 자료 개발, 음악 프로그램 제작 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 가.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생의 음악 전반에 대한 흥미도는 어떠한가?
- 2) 노래 부르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 및 실태(참여 시간, 흥미도, 상황, 형태, 동기, 음악 분야, 장르)는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 2-1) 초등학생이 최근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가?
- 3) 악기 연주하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 및 실태(참여 시간, 흥미도, 악기 종류, 형태, 동기, 음악 유형)는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 3-1) 초등학생이 다룰 수 있는 악기는 무엇인가?
- 4) 음악 감상하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 및 실태(참여 시간, 흥미도, 상황, 감상 기기, 형태, 동기, 음악 분야, 장르)는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 4-1) 초등학생은 어떤 종류의 음악 공연을 선호하며 참여도는 어떠한가?
- 5) 음악 만들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 및 실태(참여도, 흥미도, 종류, 상황)는 어떠한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

나. 설문지 구성

음악 활동별로 선호하는 정도와 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과 선호 음악 및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만들었으며 설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순서	설문지 구분	문항 내용
1	성별 및 음악 선호	성별
		선호하는 음악활동
		비선호하는 음악활동
		음악에 대한 흥미
2	노래 부르기 활동	가창 활동 시간
		가창 활동 선호도
		선호하는 가창 상황
		선호하는 가창 형태
		새로운 가창곡 습득 유형
		선호하는 가창곡 유형
		가창 시 선호하는 음악 분야
		가창 시 비선호하는 음악 분야
		가창 시 선호하는 가요 장르
		가창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인
3	악기 연주하기 활동	기악 활동 시간
		기악 활동 선호도
		선호하는 악기
		서양악기와 국악기
		선호하는 기악 상황
		선호하는 기악 형태
		기악법 습득 유형
		선호하는 기악곡 유형
4	음악 감상하기 활동	기악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인
		감상 활동 시간
		감상 활동 선호도
		선호하는 감상 상황
		감상 기기
		감상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인
		선호하는 감상곡 유형
		감상 시 선호하는 음악 분야
		감상 시 비선호하는 음악 분야
		감상 시 선호하는 가요 장르
5	음악 만들기 활동	선호하는 공연
		공연 감상 실태 및 원인
		음악 만들기 활동 시간
		음악 만들기 활동 선호도
		선호하는 음악 만들기 종류
		선호하는 음악 만들기 상황

### 3. 연구 방법

####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제주도 동지역 초등학교 4개 학교의 6학년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미응답, 불충분한 응답 등에 의해 설문에 포함시키지 못한 10부를 제한 19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남학생은 103명, 여학생은 87명이다.

#### 나. 예비 조사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설문 문항이 연구 목적을 잘 반영하는지, 설문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로 작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 동지역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하여 선택 가능한 문항의 경우 ‘중복 가능’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중복 가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설문 중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다. 둘째, 독창, 중창, 합창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있었다. 셋째, 4가지의 음악 활동 영역에 대하여 하루 평균 활동 시간을 묻는 문항을 동일하게 넣었는데 음악 만들기 활동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0~10분’을 선택하여 학생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예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다. 첫째, ‘중복 가능’이라는 어휘는 설문 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개 이상 선택 가능’으로 바꾸어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둘째, 독창, 중창, 합창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독창(혼자 부르기), 중창(소규모로 함께 부르기), 합창(대규모)’과 같이 괄호를 넣어 보충 설명을 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학생이 하루 평균 음악 만들기를 하는 시간을 ‘0~10분’으로 선택하여 유

의미한 차이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자주한다, 자주한다, 보통이다, 거의 안 한다, 전혀 안 한다’로 보기를 바꾸어 주관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물었다.

#### 다. 설문 조사

J시의 N동, D동, O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6학년 1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설문 문항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부탁드렸다.

#### 라. 자료의 처리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 분석, 빈도 분석 하였다. 교차 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라 선호 음악 활동, 음악 활동에 대한 생각, 곡 유형, 장르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빈도 분석을 통해서는 음악에 대한 흥미, 선호하는 음악 활동, 악기 종류, 감상 기기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학생들이 서술한 다룰 수 있는 악기, 선호곡은 Excel 2007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하여 빈도를 분석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초등학교 고학년의 음악성 발달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시기는 여성 평균 10~11세, 남성 평균 10~16세, 남녀 평균 12~13세로<sup>5)</sup>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대다수 아동들은 2차 성징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발성기관의 급속한 발육으로 변성기를 겪거나 또래 집단 활동에 몰두하는 등 2차 성징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는 이 시기 아동의 음악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 아동의 음악적 발달 특징을 연구한 짐머만(M. Zimmerman), 하그리브스(Hargreaves)<sup>6)</sup>, 가드너(H. Gardner)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음악성 발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아제(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 이론을 근거로 음악 능력의 발달을 연구한 짐머만(M. Zimmerman)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음악에서 전조를 구별할 수 있고, 악보 읽기 능력, 가창능력이 발달하며, 조성감과 박자감이 확립된다. 또한 중창이 가능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종류의 음악을 경험할 수 있다.<sup>7)</sup> 이는 가창능력 및 박자감, 조성감 등 음악 능력이 신장하고 매체를 통한 다양한 음악 경험이 가능한 시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악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그리브스(Hargreaves)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예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음악 발달 단계를 감각운동 단계(0~만 2세), 형식적 단계(만 2세~ 5세), 도식적 단계(만 5세~8세), 규칙적 단계(만 8세~15세), 전문적 단계(만 15세 이상)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규칙적 단계(만 8세~15세)의 아동은 정확한 음정으로 가창할 수 있으며 음악의 형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개성을 담아 창작할 수 있으며 규칙성을 담은 창작 활동이

5) 송인섭 외,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7), 88쪽.

6) David J. Hargreaves, 예술 영역에서의 발달과정은 인지 발달과 과학적인 사고 과정의 발달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하여 예술 영역 고유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였다.

7)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53쪽.

가능하다고 한다.<sup>8)</sup> 음악 형식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고 개성을 담아 창작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아동이 충분한 창작 경험을 하고 있는지 본 연구는 실태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드너는(H. Gardner) 아동에게 다양한 지능이 있다고 보고 다중지능을 연구하였는데 음악을 관장하는 ‘음악적 지능’을 독립적으로 두고 연령별로 ‘음악적 지능’이 발달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7세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은 체계적 교육을 통해 음악적 표현, 지식 및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시기라고 한다. 또한 소속 문화권의 음악적 법칙을 숙달하고자 하고, 문화권에 의해 접하는 친숙한 노래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sup>9)</sup> 음악적 표현, 지식 및 기능을 확대하는 중요한 시기의 아동들에게 친숙한 노래는 무엇인지 본 연구는 음악선호도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2. 음악 활동

### 가. 음악 활동의 개념

음악 활동은 몸을 움직여 음악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에서 음악 활동은 노래 부르기인 가창 활동, 악기 연주하기인 기악 활동, 음악 듣기인 감상, 음악 만들기인 창작 활동의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활발히 음악적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초등학교 시기 아동들에게 4가지 영역의 고른 경험과 발달은 필수적이다.

8)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서울: 교육과학사, 2008), 118~119쪽.

9)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6), 54쪽.

## 나. 가창 활동

### 1) 가창의 정의

가창은 ‘노래를 부름’을 뜻하는 말로 단순히 정의 가능한 용어이나, ‘사람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sup>10)</sup> 가창은 음악의 영역 중에서 가장 1차적인 음악 행위이며, 가장 인간과 밀접한 음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음악사회학자 아도르노가 “가창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의 하나이며, 인간 실존의 하나이며, 자기발견의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창을 음악교육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sup>11)</sup>

### 2) 가창의 중요성

가창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시킬 수 있다. 음악은 적절하게 감정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를 표출시킨다.<sup>12)</sup> 특히 가창은 악기라는 매개체를 거쳐서 2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악과 달리 성대라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1차적으로 소리를 내게 되어서 더욱 노래하는 사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sup>13)</sup> 감정과 스트레스를 1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성대를 울리며 목소리를 냄으로써 내재되어 있던 부정적 감정과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은 카타르시스 경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경직되었던 근육들을 풀어주고 자율신경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흐트러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바로잡게 하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up>14)</sup>

10) 홍승연, “한국과 미국 초등학교 가창 지도내용 비교”, 『이화음악논집』, 18(2), 2014, 5쪽.

11) 함희주, “가창학습지도를 위한 내용 및 방법”, 『음악과 민족』, 제8호, 1994, 276쪽.

12) Edith Hillman Boxill, “Continuing Notes: WorldWide networking for Peace”, 『Music Therapy』, 7(1), 1985, 80~81쪽

13) 임현정,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4) 황은영,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른 음악활동과 음악선호 조차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1), 2012.

또한 가창은 아동의 음악적 발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창은 기악 활동에 비해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인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창 활동을 통해 아동은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음고의 변별, 조성의 이해와 습득 등과 같은 선율 기능의 발달이 가능하다.<sup>15)</sup>

린다 스웨어스(L. Swears)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어린이로서 독특하면서도 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때이며 목소리의 계발과 발전을 위해 자극과 필요하다고 말한다.<sup>16)</sup>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 아동들이 어떤 음악적 자극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가창 형태와 가창곡을 선호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다. 기악 활동

### 1) 기악의 정의

기악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해진 악보를 보며 따라 연주하는 활동과 상황과 느낌에 따라 즉흥적으로 연주하여 창조적인 음악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포함한다.<sup>17)</sup> 기악 활동은 감상에 비해 음악적 기능과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데, 악기 연주를 위해서는 연주법과 악기에 대한 이해 및 호흡이나 신체 근육의 적절한 움직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악기 연주 기능을 익히는 것은 평생 음악을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는 기초가 되며 변성기나 성대가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음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방안이자 음감과 음색 개발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 (2) 기악의 중요성

기악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음악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기악 활동은 청각, 시각뿐만 아니라 근육 감각, 운동 감각 등도 수반되어 가창, 창작, 감상 등의 활동보다도 적극적인 음악 체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up>18)</sup> 아동은 다양

15) Bently. A., Musical Ability in Children and its Measurement(London: Harrap, 1996), 85쪽.

16) L. Swears, 이동훈 역, 『소년소녀합창지도법』(서울: 동진출판사, 1998), 31쪽.

17) 정현주 외, 『음악심리치료』(서울: 학지사, 2010).

18) 임미경 외,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벨로체, 2002), 74-77쪽.

한 감각을 활용하여 리듬, 가락, 화성 등 음악 요소를 적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고 창의적인 자기표현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기악 활동은 아동의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악기를 다루며 섬세한 감각을 익힐 수 있고 정확한 손놀림과 팔의 사용 등 동작의 정밀도를 높이며 특히 관악기를 다루는 경우는 텅잉을 통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이 되기도 하고 호흡기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sup>19)</sup>

기악 활동은 아동에게 심리·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한다. 감정을 억압하여 표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발산하는 성향의 청소년에게 기악 활동은 치유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p>20)</sup> 또한 중주 및 합주 형태의 기악 활동은 함께 어울리는 음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의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타인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sup>21)</sup>

## 라. 감상 활동

### (1) 감상의 정의

감상 즉 ‘Appreciation’의 어원은 라틴어 Appreciatio에서 유래된 말로써, ‘평가한다’, ‘감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Appreciation을 Webster 사전에서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 ‘미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2)</sup> 즉, 음악 감상은 음악 작품을 음미하고 미적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체험을 말하는 것이다.<sup>23)</sup>

19) 류선균, “기악을 통한 초등음악교육”, 『부산여자전문대학논문집』, 19, 1997, 6쪽.

20) 안은경,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현장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분석-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1) 성시민,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지능 및 사회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2) 강연희, “음악감상이 유아기 감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4쪽.

23)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개문사, 1983).

## 2) 감상의 중요성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들려오는 음악에 귀 기울이지 않고도 수동적으로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매체와 기기를 활용하여 손쉽게 음악을 찾아 들을 수도 있다. 음악적 지식이나 기능 없이도 만족할만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상 활동은 음악 활동 중 가장 기초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 감상 활동은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감상 활동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준다. 음악은 신체를 움직이게 하며 신체를 이완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표출시켜 감정의 정화를 일으키고 지루한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게 하며 외로운 감정을 감소케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sup>24)</sup> 이렇듯 우리는 감상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인지하고 성찰하는 정서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

### 마. 창작 활동

#### (1) 창작의 정의

창작 활동이란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과 의도를 담아 음향을 조작하는 일이다.<sup>25)</sup> 창작 활동은 음악적 아이디어를 악보에 기보하는 작곡과 악보 없이 목소리, 신체의 움직임, 악기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즉흥표현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창작 활동을 악보를 활용한 음악 만들기 즉, 작곡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작곡은 자신의 음악적 의도에 따라 악보의 형태로 음향을 조직하는 일이다.<sup>26)</sup> 아이디어를 악보의 형태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작곡을 위해서는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더불어 창작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24) 서승미, 앞의 논문, 48쪽.

25) 김미례, “초등학교 음악창작수업에서의 홀리스틱 교육이론 적용”,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쪽.

26)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325쪽.

다. 음악 이론을 배우고 수준 높은 악곡을 악기로 연주할 수 있으면서 단순한 가락조차 지어내지 못하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창작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작 욕구와 자신감이다.<sup>27)</sup> 본 연구는 학생들이 창작 활동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 및 창작 의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창작의 중요성

음악 창작 활동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가창과 기악을 포함한 모든 음악 활동이 아동의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에 기여하나, 창작활동은 음악적 개념과 생성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작물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창의적 표현능력 향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음악 창작은 연주나 감상보다 아동들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sup>28)</sup>

창작 활동은 음악적 개념의 이해 및 심화를 돕는다. 창작이란 학생이 학습한 음악 개념을 자신의 이해 및 능력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다.<sup>29)</sup> 창작 활동을 통해 창작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아동은 자신의 음악적 개념과 지식을 동원, 응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도는 신장된다. 같은 맥락에서 창작활동은 학생들이 음악적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최선의 도구도 될 수 있다.<sup>30)</sup>

또한 창작 활동은 아동의 음악 학습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아동은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모험을 하게 되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부딪치게 된다.<sup>31)</sup> 창작 활동을 통해 아동은 스스로 만든 창작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음악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27)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325쪽.

28) 김용희, “음악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 창작 학습전략들”,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음악연구』, 37, 2006, 62쪽.

29) 방금주 외, 『음악 창작 아카데미』 (서울: 학지사, 2000), 5쪽.

30) 방금주 외, 앞의 책, 15쪽.

31) 방금주 외, 앞의 책, 15쪽.

### 3. 음악선호도

#### 가. 음악선호도의 개념

선호란 일정한 범위의 가능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이고 특정한 선택을 의미한다.<sup>32)</sup> 즉 선호도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분명한 선택이며, 넓은 시간적 범위에서 발휘되는 기질 혹은 취향과 달리 특정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음악선호도란 어떤 특정한 음악을 지지하는 정서적 반응을 말하며<sup>33)</sup> 여러 가지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 나. 음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음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에는 나이, 성별 등이 있다. 나이에 따라 음악에 대한 흥미가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높은 흥미를 보이며 6학년까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증가하여 대학생 때 가장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sup>34)</sup> 성별에 따라서도 음악선호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음악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와 친숙도가 높고 특히 재즈 음악과 국악에 대한 선호가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up>35)</sup>

음악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는 사회·문화적 특성, 음악 훈련 경험 등이 있다. 사회·문화적 특성과 음악선호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은 학생이 수준이 낮은 학생보다 고전음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sup>36)</sup> 또래 집단이 음악선호도 형성에 큰 영향을

32) Abeles, H. F., "Response to music", 『In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edited by Donald A.』 (San Antonio: IMS Press, 1988), 105-140쪽.

33) Peery, J. C., Peery, I. W., "Effects of exposure to Classical Music on the Musical Preference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1), 1986, 24-33쪽.

34) LeBlanc, A., "An interactive theory of music pre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 1982, 28~45쪽.

35) 장선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음악양식에 대한 선호도", 『교과교육학연구』, 8(2), 2004, 266쪽

36) Baumann, V. H., "Teen-age music pre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8, 75-84쪽.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sup>37)</sup> 또래 집단뿐만 아니라 부모의 음악적 배경, 부모가 어떠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지 등도 아동의 음악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p>38)</sup> 음악 훈련 경험 또한 음악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음악 관련 단체 참가, 개인 레슨과 같은 음악 훈련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참여한 기간 등에 따라 다른 음악선호도를 보인다고 나타났다.<sup>39)</sup>

---

37) LeBlanc, A., "An interactive theory of music pre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 1982, 28~45쪽.

38) Abeles, H. F., "Response to music", 『In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edited by Donald A.』(San Antonio: IMS Press, 1988), 105-140쪽.

39) 류경빈, "국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음악 선호도 및 활동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Ⅲ. 음악선호도 및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1. 음악 활동간 선호도 및 실태 비교

음악 활동간 선호도 및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음악 전반에 대한 흥미를 알아보고 음악 활동별로 하루 평균 활동 시간을 비교하여 음악 활동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활동과 가장 싫어하는 음악 활동을 알아보고 음악 활동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여 음악 활동간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 가. 음악 전반에 대한 흥미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를 묻는 질문에서는 <표 1>과 같이 ‘매우 많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20.0%(38명), ‘많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28.9%(55명), ‘보통’으로 응답한 학생이 37.9%(72명), ‘적음’으로 응답한 학생이 9.5%(18명), ‘전혀 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7%(7명)로 나타났다. 음악 전반에 대한 흥미가 보통인 학생들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들의 86.8%가 보통 이상의 흥미를 보여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는 매우 높았다.

<표1> 음악 전반에 대한 흥미

	n	%
매우 많음	38	20.0
많음	55	28.9
<b>보통</b>	<b>72</b>	<b>37.9</b>
적음	18	9.5
전혀 없음	7	3.7
합계	190	100.0

#### 나. 음악 활동별 하루 평균 활동 시간 비교

학생들의 음악 활동별 하루 평균 활동 시간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2>와 같이 가창 활동인 경우 '0-1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24.7%(47명), '11-2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27.4%(52명), '21-3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23.7%(45명), '31-4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10.0%(19명), '4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2%(27명)로 가창 활동을 하루 평균 11-20분 정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기악의 경우 '0-1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57.9%(110명), '11-2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18.4%(35명), '21-3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7.4%(14명), '31-4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6.8%(18명), '4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5%(18명)로 기악 활동을 하루 평균 0-10분 정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감상의 경우 '0-1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23.2%(44명), '11-2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26.8%(51명), '21-3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13.7%(26명), '31-40분'으로 응답한 학생이 10.5%(20명), '4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8%(49명)로 감상 활동을 하루 평균 11-20분 정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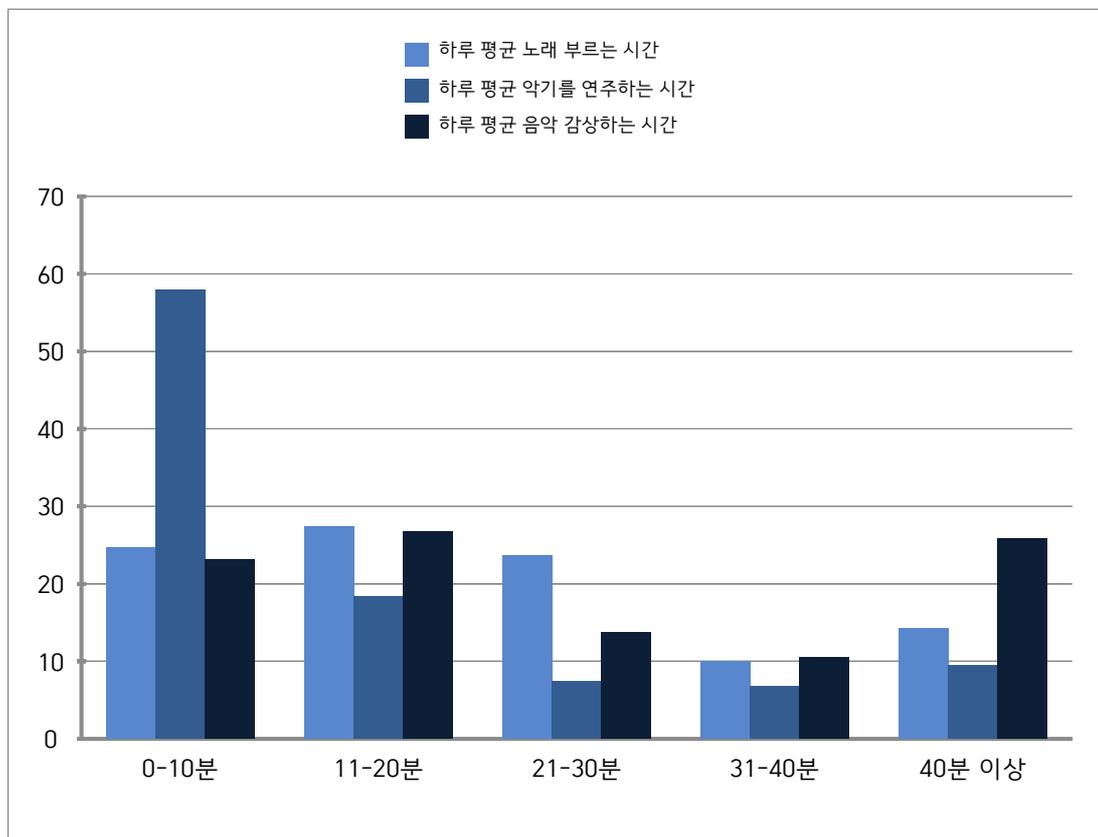
창작의 경우 '전혀 안 한다'로 응답한 학생이 58.4%(111명), '거의 안 한다'로 응답한 학생이 21.6%(41명),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14.7%(28명), '자주 한다'로 응답한 학생이 2.1%(4명), '매우 자주 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2%(6명)로 가창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전혀 안 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58.4%로 월등히 많은데 비해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로 응답한 학생이 각각 2.1%, 3.2%로 현저히 낮아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음악 활동별 하루 평균 활동 시간

음악 활동	시간(분)						전체
	0-10	11-20	21-30	31-40	40이상		
하루 평균 노래 부르는 시간	n	47	<b>52</b>	45	19	27	190
	%	24.7	<b>27.4</b>	23.7	10.0	14.2	100.0
하루 평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	n	<b>110</b>	35	14	13	18	190
	%	<b>57.9</b>	18.4	7.4	6.8	9.5	100.0
하루 평균 음악 감상하는 시간	n	44	<b>51</b>	26	20	49	190
	%	23.2	<b>26.8</b>	13.7	10.5	25.8	100.0
평소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하는 정도	n	전혀 안한다	거의 안한다	보통이다	자주한다	매우 자주한다	전체
	n	<b>111</b>	41	28	4	6	190
	%	<b>58.4</b>	21.6	14.7	2.1	3.2	100.0

가창, 기악, 감상 활동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악 활동의 경우 가장 적은 시간인 '0-10분' 정도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는 57.9%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가창의 경우 27.4%의 학생이 '11-20분' 정도 음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두 번째로 많은 24.7%의 학생이 '0-10분' 정도 음악 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감상의 경우 26.8%의 학생이 '11-20분' 정도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많은 25.8%의 학생들이 '40분 이상' 감상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창, 기악, 감상 활동 중 감상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고, 기악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음악 활동별 하루 평균 활동 시간 비교



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 활동

가장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4>와 같이 전체 50.5%(96명)의 학생이 ‘감상’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창’이 25.8%(49명)로 두 번째, ‘기악’이 21.6%(41명)로 세 번째, 창작이 2.1%(4명)로 네 번째로 나타났다.

성별로 교차분석 해 보았을 때  $\chi^2$  값<sup>40)</sup>은 10.583, p 값<sup>41)</sup>은 .014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감상’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남학생은 60.2%(62명)의 비율, 여학생은 39.1%(34명)의 비율로 남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34.5%(30명)가 ‘가창’을 선호한다고 응답한데 반해 남학생은 18.4%(19명)에 그쳐 가창에 대한 흥미는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장 좋아하는 음악 활동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가장 좋아하는 음악 활동	노래 부르기	n	19	30	49	10.583	.014
		%	18.4	34.5	25.8		
	악기 연주하기	n	19	22	41		
		%	18.4	25.3	21.6		
	음악 감상하기	n	<b>62</b>	<b>34</b>	<b>96</b>		
		%	<b>60.2</b>	<b>39.1</b>	<b>50.5</b>		
	음악 만들기	n	3	1	4		
		%	2.9	1.1	2.1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40)  $\chi^2$  값은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을 제공하여 그 분포를 파악하는 것으로 측정된 데이터와 변수의 연관성을 보고 싶을 때 사용한다.

41) p 값은 설정한 가설이 틀릴 확률을 의미하며 (1-p) 값은 가설이 맞을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미하다고 여기고, 0.05보다 큰 경우 유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라. 가장 싫어하는 음악 활동

가장 싫어하는 음악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5>와 같이 전체 41.6%(79명)의 학생이 ‘창작’을 가장 싫어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창’이 29.5%(56명)로 두 번째, ‘기악’이 21.6%(41명)로 세 번째, 감상이 7.4%(14명)로 네 번째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가장 싫어하는 음악 활동에서 ‘가창’이 36.9%(38명)로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은 ‘창작’이 48.3%(42명)으로 가장 높아 남학생과 여학생이 싫어하는 음악 활동이 서로 달랐다.

<표 5> 가장 싫어하는 음악 활동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가장 싫어하는 음악 활동	노래 부르기	n	<b>38</b>	18	56	6.664	.083
		%	<b>36.9</b>	20.7	29.5		
	악기 연주하기	n	22	19	41		
		%	21.4	21.8	21.6		
	음악 감상하기	n	6	8	14		
		%	5.8	9.2	7.4		
	음악 만들기	n	37	<b>42</b>	<b>79</b>		
		%	35.9	<b>48.3</b>	<b>41.6</b>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 마. 음악 활동에 대한 생각

음악 활동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창의 경우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44.2%(84명)로 가장 높았으며 82.1%가 보통 이상의 흥미를 보였다. '어렵다'로 응답한 학생은 5.8%(11명)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가창에 대한 생각을 성별로 교차 분석해보았을 때  $\chi^2$  값은 20.133, p 값은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50.6%(44명)가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43.7%(38명)가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여학생의 가창에 대한 흥미가 남학생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기악의 경우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41.1%(78명)로 가장 높았고 71.6%가 보통 이상의 흥미를 보였다. '어렵다'로 응답한 비율은 8.4%(16명)로 가장 낮았다. 감상의 경우 '재미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64.7%(123명)로 가장 높았고 95.8%가 보통 이상의 흥미를 보였다. '어렵다'로 응답한 비율은 1.1%(2명)로 가장 낮았다. 창작의 경우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31.6%(60명)로 가장 높았고 43.2%가 보통 이상의 흥미를 보였다. '재미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11.6%(22명)로 가장 낮았다.

감상 활동이 95.8%로 90% 이상의 압도적으로 높은 흥미를 보이고 가창 활동은 82.1%로 80% 이상의 흥미를 보인데 반해 기악 활동은 71.6%로 70% 초반대, 창작 활동이 50%에 못 미치는 43.2%에 그쳐 학생들의 음악 활동별 흥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음악 활동에 대한 생각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노래 부르기에 대한 생각	재미있다	n	28	<b>44</b>	72	20.13 3	.000
		%	27.2	<b>50.6</b>	37.9		
	보통이다	n	<b>46</b>	38	<b>84</b>		
		%	<b>44.7</b>	43.7	<b>44.2</b>		
	재미없다	n	20	3	23		
		%	19.4	3.4	12.1		
	어렵다	n	9	2	11		
		%	8.7	2.3	5.8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악기 연주하기에 대한 생각	재미있다	n	26	<b>32</b>	58	3.230	.357
		%	25.2	<b>36.8</b>	30.5		
	보통이다	n	<b>46</b>	<b>32</b>	<b>78</b>		
		%	<b>44.7</b>	<b>36.8</b>	<b>41.1</b>		
	재미없다	n	21	17	38		
		%	20.4	19.5	20.0		
	어렵다	n	10	6	16		
		%	9.7	6.9	8.4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음악 감상에 대한 생각	재미있다	n	<b>63</b>	<b>60</b>	<b>123</b>	4.253	.235
		%	<b>61.2</b>	<b>69.0</b>	<b>64.7</b>		
	보통이다	n	33	26	59		
		%	32.0	29.9	31.1		
	재미없다	n	5	1	6		
		%	4.9	1.1	3.2		
	어렵다	n	2	0	2		
		%	1.9	.0	1.1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음악 만들기에 대한 생각	재미있다	n	12	10	22	4.052	.256
		%	11.7	11.5	11.6		
	보통이다	n	30	<b>30</b>	<b>60</b>		
		%	29.1	<b>34.5</b>	<b>31.6</b>		
	재미없다	n	28	<b>30</b>	58		
		%	27.2	<b>34.5</b>	30.5		
	어렵다	n	<b>33</b>	17	50		
		%	<b>32.0</b>	19.5	26.3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 2. 가창 활동 선호도 및 실태

가창 활동의 선호도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호하는 가창 상황, 선호하는 가창 형태, 선호하는 가창 분야 및 그 이유, 선호하지 않는 가창 분야 및 그 이유, 선호하는 가요 장르, 가창 활동의 동기, 새로운 가창곡을 배우게 되는 방법 등을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 가. 가창 상황

선호하는 노래 부르기 상황은 <표 7>과 같이 ‘혼자 노래 부르기’가 51.6%(98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함께 노래 부르기’ 26.8%(51명), 세 번째는 8.4%(16명)가 ‘학교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기’로 응답하였다.

<표 7> 선호하는 가창 상황

	n	%
<b>혼자 노래 부르기</b>	<b>98</b>	<b>51.6</b>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함께 노래 부르기	51	26.8
학교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기	16	8.4
가족과 함께 노래 부르기	11	5.8
합창반, 성가대 등 동아리에서 노래 부르기	11	5.8
기타 의견	3	1.6
합계	190	100.0

나. 가창 형태

선호하는 노래 부르기 형태로는 <표 8>과 같이 ‘중창’이 43.2%(82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독창’ 32.1%(61명), 세 번째는 24.7%(47명)가 ‘합창’으로 응답하였다.

<표 8> 선호하는 가창 형태

	n	%
독창	61	32.1
<b>중창</b>	<b>82</b>	<b>43.2</b>
합창	47	24.7
합계	190	100.0

다. 가창곡 유형

선호하는 가창곡 유형은 <표 9>와 같이 ‘신나고 빠른 노래’가 73.2%(139명)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곱고 아름다운 노래’ 12.6%(24명), 세 번째는 7.9%(15명)가 ‘조용하고 잔잔한 노래’로 응답하였다.

<표 9> 선호하는 가창곡 유형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즐거 부르는 노래 유형	신나고 빠른 노래	n	78	61	<b>139</b>	3.356	.645
		%	75.7	70.1	<b>73.2</b>		
	곱고 아름다운 노래	n	10	14	24		
		%	9.7	16.1	12.6		
	슬프고 웅장한 노래	n	3	2	5		
		%	2.9	2.3	2.6		
	조용하고 잔잔한 노래	n	7	8	15		
		%	6.8	9.2	7.9		
	노랫말이 재미있는 노래	n	4	2	6		
		%	3.9	2.3	3.2		
	기타	n	1	0	1		
		%	1.0	.0	.5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라. 선호하는 가창 분야

선호하는 가창 분야는 <표 10>과 같이 ‘한국 대중가요’가 75.8%(144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외국 대중가요’ 14.7%(28명), 세 번째는 6.8%(13명)가 ‘동요’로 응답하였다. 국악동요(2.6%)와 동요(6.8%)는 모두 10%미만에 그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가창 선호가 대중가요에 치우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선호하는 가창 분야

	n	%
동요	13	6.8
<b>한국 대중가요</b>	<b>144</b>	<b>75.8</b>
국악동요	5	2.6
외국 대중가요	28	14.7
합계	190	100.0

선호하는 가창 분야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이어 선택한 분야를 즐겨 부르는 이유를 서술하게 하여 <표 11>과 같이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동요 분야를 즐겨 부른다고 선택한 학생 13명 중 13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재미있어서’가 53.8%(7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쉬워서’, ‘접할 기회가 많아서’가 23.1%(3명)로 동일하게 나왔다.

한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부른다고 선택한 학생 144명 중 101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재미있어서’가 64.3%(65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노래가 좋아서’가 17.8%(18명), 세 번째로 ‘접할 기회가 많아서’가 11.9%(12명)로 나왔다.

국악 분야를 즐겨 부른다고 선택한 학생 5명 중 1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쉬워서’로 서술하였다.

외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부른다고 선택한 학생 28명 중 22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노래가 좋아서’가 36.4%(8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재미있어서’가 31.8%(7명)’, 세 번째로 ‘외국어 공부가 되어서’가 18.2%(4명)로 나왔다.

<표 11> 선호하는 이유

분야	이유	n	%
동요	<b>재미있어서</b>	<b>7</b>	<b>53.8</b>
	쉬워서	3	23.1
	접할 기회가 많아서	3	23.1
	합계	13	100
한국 대중가요	<b>재미있어서</b>	<b>65</b>	<b>64.3</b>
	노래가 좋아서	18	17.8
	접할 기회가 많아서	12	11.9
	가수가 좋아서	4	4.0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2	2.0
	합계	101	100
국악동요	<b>신나서</b>	<b>1</b>	<b>100</b>
	합계	1	100
외국 대중가요	재미있어서	7	31.8
	<b>노래가 좋아서</b>	<b>8</b>	<b>36.4</b>
	외국어 공부가 되어서	4	18.2
	애니메이션 OST	3	13.6
	합계	22	100
합계		137	

마. 선호하지 않는 가창 분야

선호하지 않는 가창 분야는 <표 12>와 같이 ‘국악동요’가 51.6%(98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동요’ 25.3%(48명), 세 번째는 18.9%(36명) ‘외국 대중가요’, 네 번째로는 4.2%(8명)가 ‘한국 대중가요’로 응답하였다.

<표 12> 선호하지 않는 가창 분야

	n	%
동요	48	25.3
한국 대중가요	8	4.2
<b>국악동요</b>	<b>98</b>	<b>51.6</b>
외국 대중가요	36	18.9
합계	190	100.0

선호하지 않는 가창 분야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이어 선택한 분야를 즐겨 부르  
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게 하여 <표 13>과 같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동요 분야를 즐겨 부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48명 중 46명의 학생이 그 이유  
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유치해서’가 56.5%(26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재미없어서’가 32.6%(15명), 세 번째로 ‘지겨워서’가 6.5%(3명)로 응답하였다.

한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부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8명 중 5명의 학생  
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재미없어서’가 80.0%(4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잘 몰라서’가 20.0%(1명)로 응답하였다.

국악동요 분야를 즐겨 부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98명 중 87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재미없어서’가 51.7%(45명)로 가  
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어려워서’가 26.5%(23명), 세 번째로 17.2%(15명)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외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부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36명 중 27명의 학  
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언어가 달라서’가 70.4%(19  
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재미없어서’가 14.8%(4명), 세 번째로 7.4%(2  
명)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몰라서’로 응답하였다.

<표 13> 선호하지 않는 이유

분야	이유	n	%
동요	재미없어서	15	32.6
	<b>유치해서</b>	<b>26</b>	<b>56.5</b>
	접할 기회가 없어서	1	2.2
	지겨워서	3	6.5
	어려워서	1	2.2
	합계	46	
한국 대중가요	<b>재미없어서</b>	<b>4</b>	<b>80.0</b>
	잘 몰라서	1	20.0
	합계	5	100
국악동요	<b>재미없어서</b>	<b>45</b>	51.7
	접할 기회가 없어서	15	17.2
	어려워서	23	26.5
	잘 몰라서	4	4.6
	합계	87	100
외국 대중가요	재미없어서	4	14.8
	접할 기회가 없어서	2	<b>7.4</b>
	잘 몰라서	2	<b>7.4</b>
	<b>언어가 달라서</b>	<b>19</b>	<b>70.4</b>
	합계	27	100
합계			

바. 가창곡 장르

가요 부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가요 장르를 세분화하여 조사한 결과 <표 14>와 같이 ‘댄스’가 41.1%(78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랩/힙합’ 22.6%(43명), 세 번째는 18.4%(35명)가 ‘발라드’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교차분석 해 보았을 때  $\chi^2$  값은 51.407, p 값은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67.8%(59명)가 ‘댄스’를 선택하여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발라드’로 14.9%(13명)가 응답하였다. ‘댄스’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고 다른 장르들은 고루 낮았다. 반면 남학생은 32.0%(33명)가 ‘랩/힙합’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두 번째는 ‘발라드’로 21.4%(22명)가 응답하였다. 댄스, 일렉, 트로트 장르 모두 10%가 넘는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표 14> 선호하는 가창 분야

		n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발라드	n	22	13	35	51.407	.000	
	%	21.4	14.9	18.4			
댄스	n	19	<b>59</b>	<b>78</b>			
	%	18.4	<b>67.8</b>	<b>41.1</b>			
가장 즐겨 부르는 가요 장르	랩/힙합	n	<b>33</b>	10			43
		%	<b>32.0</b>	11.5			22.6
록	n	3	0	3			
	%	2.9	.0	1.6			
일렉 (전자음악)	n	14	3	17			
	%	13.6	3.4	8.9			
트로트	n	12	2	14			
	%	11.7	2.3	7.4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사. 선호곡

최근 가장 즐겨 부르거나 즐겨 듣는 노래의 제목을 묻는 질문을 통해 가창곡 혹은 감상곡의 실재를 알아보았다. 곡의 제목과 가수 혹은 연주를 최대 3개까지 적을 수 있게 하였는데 학생들이 응답한 총 343곡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한 곡을 5순위까지 선정한 결과 <표 15>와 같았다. ‘cheer up’이 9.6%(33명)으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는 ‘너 그리고 나’ 5.2%(18명), 세 번째는 ‘불타오르네’ 4.0%(14명), 네 번째는 ‘하늘바라기’ 2.9%(10명), 다섯 번째는 ‘monster’로 2.3%(8명)의 수치를 보였다. 다섯 곡 모두 한국 대중가요에 속하며 장르는 4곡이 댄스, 1곡이 발라드로 댄스곡이 많았다.

<표 15> 선호곡 순위

제목	가수	장르	n	%
<b>Cheer up</b>	<b>Twice</b>	<b>댄스</b>	<b>33</b>	<b>9.6</b>
너 그리고 나	여자친구	댄스	18	5.2
불타오르네	방탄소년단	댄스	14	4.0
하늘바라기	정은지	발라드	10	2.9
Monster	EXO	댄스	8	2.3

최근 가장 즐겨 부르거나 즐겨 듣는 노래의 제목을 묻는 질문을 통해 수합한 346곡을 동요, 한국 대중가요, 국악동요, 외국 대중가요, 클래식의 다섯 분야로 나눈 결과 <표 16>과 같이 ‘한국 대중가요’가 87.3%(302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외국 대중가요’ 11.5%(40명), 세 번째는 1.2%(4명) ‘동요’로 응답하였고 ‘국악동요’와 ‘클래식’ 분야의 곡은 한 곡도 나오지 않았다. 87.3%의 ‘한국 대중가요’, 11.5%의 ‘외국 대중가요’를 합치면 실제로는 98.8%가 대중가요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6> 선호곡 음악 분야

	n	%
동요	4	1.2
<b>한국 대중가요</b>	<b>302</b>	<b>87.3</b>
국악동요	-	-
외국 대중가요	40	11.5
클래식	-	-
합계	346	100.0

학생들이 최근 가장 즐겨 부르거나 즐겨 듣는 노래의 87.3%가 ‘한국 대중가요’로 나타났는데 이 한국 대중가요를 장르별로 나눈 결과 <표 17>과 같았다. ‘댄스’가 52.6%(159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랩/힙합’ 21.9%(66명), 세 번째는 11.3%(34명) ‘발라드’ 곡이었다.

<표 17> 한국 대중가요 장르 분석

	n	%
발라드	34	11.3
<b>댄스</b>	<b>159</b>	<b>52.6</b>
랩/힙합	66	21.9
록	14	4.6
일렉(전자음악)	4	1.3
트로트	13	4.3
기타(포크, 소울)	12	4.0
합계	302	100.0

#### 아. 가창 활동의 동기

가창 활동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결과 <표 18>과 같이 ‘심심함을 없애려고’가 31.7%(97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기분이 좋아져서’ 30.1%(92명), 세 번째는 29.4%(90명) ‘재미있어서’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가창 활동이 학생들의 기분전환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진로를 위하여’,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시켜서’는 각각 4.6%(14명), 3.2%(10명)로 외적 동기에 의해 가창 활동을 하는 학생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가창 활동의 동기

	n	%
기분이 좋아져서	92	30.1
<b>심심함을 없애려고</b>	<b>97</b>	<b>31.7</b>
재미있어서	90	29.4
진로를 위하여(음악 전공을 하기 위해)	3	1.0
자신감 혹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14	4.6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시켜서	10	3.2
합계	306	100

#### 자. 새로운 가창곡을 배우게 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노래를 배우게 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표 19>와 같이 ‘인터넷, tv등 매체에서 노래를 듣고’가 68.4%(130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친구의 노래를 듣고’ 14.7%(28명), 세 번째는 7.4%(14명) ‘스스로 악보를 보고’로 응답하였다.

<표 19> 새로운 가창곡을 배우게 되는 방법

	n	%
스스로 악보를 보고	14	7.4
친구의 노래를 듣고	28	14.7
<b>인터넷, tv등 매체에서 노래를 듣고</b>	<b>130</b>	<b>68.4</b>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13	6.8
학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5	2.6
합계	190	100.0

### 3. 기악 활동 선호도 및 실태

기악 활동의 선호도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호하는 기악 상황, 선호하는 기악 형태, 선호하는 기악곡 유형, 선호하는 악기 종류, 동서양 악기 선호, 다룰 수 있는 악기, 기악 활동의 동기, 악기 연주를 배우게 되는 방법 등을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 가. 기악 상황

선호하는 악기 연주하기 상황은 <표 20>과 같이 ‘혼자 있을 때 악기 연주하기’가 36.3%(69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악기 연주’ 33.2%(63명), 세 번째는 13.7%(26명) ‘여가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연주’로 응답하였다.

‘학교 수업 시간에 악기 연주’의 응답 비율이 33.2%인 것은 ‘학교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기’가 8.4%,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감상하기’가 6.3%,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만들기’가 13.2%를 차지한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학생들은 다른 음악 활동에 비해 수업 시간에 이뤄지는 기악 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0> 선호하는 기악 상황

	n	%
<b>혼자 있을 때 악기 연주</b>	<b>69</b>	<b>36.3</b>
여가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연주	26	13.7
학교 수업 시간에 악기 연주	63	33.2
교회 밴드, 학교 오케스트라 등 동아리에서 악기 연주	15	7.9
학원에서 악기 연주	9	4.7
가족 앞에서 혹은 가족과 함께 악기 연주	6	3.2
기타	2	1.1
합계	190	100.0

나. 기악 형태

선호하는 악기 연주하기 형태는 <표 21>과 같이 ‘합주’가 38.4%(73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중주’ 35.3%(67명), 세 번째는 26.3%(50명) ‘독주’로 응답하였다.

<표 21> 선호하는 기악 형태

	n	%
독주	50	26.3
중주	67	35.3
<b>합주</b>	<b>73</b>	<b>38.4</b>
합계	190	100.0

다. 기악곡 유형

선호하는 기악곡 유형은 <표 22>와 같이 ‘신나고 빠른 음악’이 50.5%(96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곱고 아름다운 음악’ 29.5%(56명), 세 번째는 14.7%(28명)가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으로 응답하였다.

<표 22> 선호하는 기악곡 유형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가장 즐거 연주 하는 음악 유형	신나고 빠른 음악	n	62	34	<b>96</b>	10.873	.028
		%	60.2	39.1	<b>50.5</b>		
	곱고 아름다운 음악	n	21	35	56		
		%	20.4	40.2	29.5		
	슬프고 웅장한 음악	n	4	3	7		
		%	3.9	3.4	3.7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	n	14	14	28		
		%	13.6	16.1	14.7		
	기타	n	2	1	3		
		%	1.9	1.1	1.6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라. 악기 종류

선호하는 악기 종류는 <표 23>과 같이 ‘건반악기’가 36.3%(69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관악기’ 22.1%(42명), 세 번째는 ‘현악기’ 21.1%(40명), 네 번째는 20.5%(39명)가 ‘타악기’로 응답하였다.

<표 23> 선호하는 악기 종류

	n	%
타악기	39	20.5
현악기	40	21.1
<b>건반악기</b>	<b>69</b>	<b>36.3</b>
관악기	42	22.1
합계	190	100.0

마. 동서양 악기 선호

동서양 악기 중 좋아하는 악기를 묻는 질문에는 <표 24>와 같이 ‘서양악기’가 85.8%(163명)로 가장 높았으며 ‘동양악기’는 14.2%(27명)에 그쳤다.

<표 24> 동서양 악기 선호

	n	%
<b>서양악기</b>	<b>163</b>	<b>85.8</b>
동양악기	27	14.2
합계	190	100.0

바. 다루는 악기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3개 이하로 적도록 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30종의 악기가 나왔으며 <표 25>와 같이 피아노 외 22종의 서양악기를 다룰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1.6%(392명), 장구 외 6종의 동양 악기를 다룰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8.4%(36명)이었다.

<표 25> 다루는 악기의 동서양 구분

	n	%
<b>서양악기</b>	<b>392</b>	<b>91.6</b>
동양악기	36	8.4
합계	428	100.0

학생들이 다루는 악기를 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관악기로 분류한 결과 <표 26> 과 같이 '관악기'가 50.0%(214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건반악기' 23.8%(102명), 세 번째는 '현악기' 16.4%(70명), 네 번째는 9.8%(42명)가 '타악기'로 응답하였다.

타악기의 경우 드럼 외 8종의 악기가 나왔으며 이 중 장구(15명)가 가장 많았고 현악기는 기타 외 5종의 악기가 나왔으며 이 중 바이올린(34명)이 가장 많았다. 건반악기의 경우 피아노 외 2종의 악기가 나왔으며 이 중 피아노(94명)가 가장 많이 나왔고 관악기는 리코더 외 11종의 악기가 나왔으며 이 중 리코더(103명)가 가장 많았다.

악기 전체로 보았을 때 리코더가 24.1%(103명)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피아노 22.0%(94명), 세 번째는 오카리나로 17.3%(74명)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26> 다루는 악기 종류

		n	계	%
타악기	드럼	9	42	9.8
	캐스터네츠	2		
	탬버린	5		
	젬베	1		
	트라이앵글	1		
	<b>장구</b>	<b>15</b>		
	징	4		
	북	3		
	소고	2		
현악기	기타	20	70	16.4
	우쿠렐레	9		
	<b>바이올린</b>	<b>34</b>		
	비올라	1		
	첼로	5		
	가야금	1		
건반악기	<b>피아노</b>	<b>94</b>	102	23.8
	멜로디언	4		
	실로폰	4		
관악기	<b>리코더</b>	<b>103</b>	214	50.0
	오카리나	74		
	하모니카	3		
	플루트	13		
	클라리넷	1		
	호른	2		
	색소폰	2		
	트럼펫	3		
	트롬본	1		
	유포늄	1		
	단소	10		
	소금	1		
	합계	428		

사. 기악 활동의 동기

기악 활동을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결과 <표 27>과 같이 ‘심심함을 없애려고’가 23.6%(61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시켜서’ 21.6%(56명), 세 번째로 ‘기분이 좋아져서’, ‘재미있어서’가 21.2%(55명)의 같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27> 기악 활동의 동기

	n	%
기분이 좋아져서	55	21.2
<b>심심함을 없애려고</b>	<b>61</b>	<b>23.6</b>
재미있어서	55	21.2
진로를 위하여(음악 전공을 하기 위해)	5	1.9
자신감 혹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27	10.5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시켜서	56	21.6
합계	259	100

아. 악기 연주법을 배우게 되는 방법

악기 연주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28>과 같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가 52.6%(100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학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25.3%(48명), 세 번째는 15.3%(29명)가 ‘스스로 인터넷에서 연주 동영상을 보고’로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와 ‘학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가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으로 보아 기악 활동에 있어서는 또래의 도움 보다는 학교 혹은 학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8> 악기 연주법을 배우게 되는 방법

	n	%
스스로 인터넷에서 연주 동영상을 보고	29	15.3
친구나 선배의 가르침을 받고	11	5.8
<b>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b>	<b>100</b>	<b>52.6</b>
학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48	25.3
기타	2	1.1
합계	190	100.0

#### 4. 감상 활동 선호도 및 실태

감상 활동의 선호도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호하는 감상 상황, 감상 기기, 선호하는 감상곡 유형, 선호하는 감상 분야 및 이유, 선호하지 않는 감상 분야 및 이유, 감상 활동의 동기, 새로운 감상곡을 배우게 되는 방법, 연간 음악 공연 관람 횟수 등을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 가. 감상 상황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 감상하기 상황은 <표 29>와 같이 ‘혼자 음악 감상하기’가 64.7%(123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 감상하기’ 14.7%(28명), 세 번째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감상하기’, ‘가족과 함께 음악 감상하기’로 6.3%(12명) 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창과 기악에 이어 감상에 서도 학생들은 혼자 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혼자 노래 부르기’가 51.6%, ‘혼자 있을 때 악기 연주하기’가 36.3%인데 비해 ‘혼자 음악 감상하기’는 64.7%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9> 선호하는 감상 상황

	n	%
<b>혼자 음악 감상하기</b>	<b>123</b>	<b>64.7</b>
친구들과 함께 음악 감상하게	28	14.7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감상하기	12	6.3
가족과 함께 음악 감상하기	12	6.3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장에서 음악 감상하기	14	7.4
기타	1	0.5
합계	190	100.0

나. 감상 기기

음악 감상 기기는 <표 30>과 같이 ‘핸드폰’이 72.6%(138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컴퓨터’ 16.3%(31명), 세 번째는 5.3%(10명) ‘tv’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고 핸드폰으로 음악·동영상을 감상하는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응답 비율이 72.6%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30> 음악 감상 기기

	n	%
라디오	2	1.1
CD플레이어	4	2.1
컴퓨터	31	16.3
<b>핸드폰</b>	<b>138</b>	<b>72.6</b>
MP3 플레이어	5	2.6
TV	10	5.3
합계	190	100.0

다. 감상곡 유형

선호하는 가창곡 유형은 <표 31>과 같이 ‘신나고 빠른 음악’이 76.3%(145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곱고 아름다운 음악’ 11.1%(21명), 세 번째는 7.9%(15명)가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으로 응답하였다.

<표 31> 선호하는 감상곡 유형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가장 즐거 듣는 음악 유형	신나고 빠른 음악	n	81	64	<b>145</b>	3.461	.484
		%	78.6	73.6	<b>76.3</b>		
	곱고 아름다운 음악	n	11	10	21		
		%	10.7	11.5	11.1		
	슬프고 웅장한 음악	n	3	4	7		
		%	2.9	4.6	3.7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	n	6	9	15		
		%	5.8	10.3	7.9		
	기타	n	2	0	2		
		%	1.9	.0	1.1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라. 선호하는 감상 분야

선호하는 감상 분야는 <표 32>과 같이 ‘한국 대중가요’가 74.7%(142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외국 대중가요’ 14.2%(27명), 세 번째는 5.3%(10명)가 ‘클래식’으로 응답하였다. 한국 대중가요(74.7%)와 외국 대중가요(14.2%)에 비해 국악(1.1%)과 동요(4.7%), 클래식(5.3%)는 모두 5% 이내의 응답 비율을 보여 학생들이 감상하는 곡이 대중가요에 치우쳐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2> 선호하는 감상 분야

	n	%
동요	9	4.7
<b>한국 대중가요</b>	<b>142</b>	<b>74.7</b>
국악	2	1.1
외국 대중가요	27	14.2
클래식	10	5.3
합계	190	100.0

이어 선택한 분야를 즐겨 듣는 이유를 서술하게 하여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동요 분야를 즐겨 듣는다고 선택한 학생 9명 중 5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표 33>과 같이 ‘재미있어서’가 60.0%(3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접할 기회가 많아서’가 40.0%(2명)로 나왔다.

한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듣는다고 선택한 학생 142명 중 106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재미있어서’가 67.9%(72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노래가 좋아서’가 12.3%(13명), 세 번째로 ‘접할 기회가 많아서’가 8.5%(9명)로 나왔다.

국악 분야를 즐겨 듣는다고 선택한 학생 2명 중 1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한국인이라서’로 서술하였다.

외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듣는다고 선택한 학생 27명 중 21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노래가 좋아서’가 57.1%(12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재미있어서’가 19.0%(4명)’, 세 번째로 ‘외국어 공부’가 되

어서'가 14.3%(3명)로 나왔다.

클래식 분야를 즐겨 듣는다고 선택한 학생 10명 중 4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노래가 좋아서'가 75.0%(3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신나서'가 25%(1명)로 나왔다.

<표 33> 선호하는 이유

분야	이유	n	%
동요	<b>재미있어서</b>	<b>3</b>	<b>60</b>
	접할 기회가 많아서	2	40
	합계	5	100
한국 대중가요	<b>재미있어서</b>	<b>72</b>	<b>67.9</b>
	노래가 좋아서	13	12.3
	접할 기회가 많아서	9	8.5
	가수가 좋아서	6	5.7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1	1.0
	음악이 쉬워서	5	4.6
합계	106	100	
국악동요	<b>한국인이어서</b>	<b>1</b>	<b>100.0</b>
	합계	1	100
외국 대중가요	재미있어서	4	19.0
	<b>노래가 좋아서</b>	<b>12</b>	<b>57.1</b>
	접할 기회가 많아서	1	4.8
	외국어 공부가 되어서	3	14.3
	애니메이션 OST	1	4.8
합계	21	100	
클래식	<b>노래가 좋아서</b>	<b>3</b>	<b>75</b>
	신나서	1	25
	합계	4	100
합계		137	

마. 선호하지 않는 감상 분야

선호하지 않는 감상 분야는 <표 34>와 같이 ‘국악’이 48.9%(93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동요’ 22.1%(42명), 세 번째는 16.3%(31명)가 ‘클래식’으로 응답하였다.

<표 34> 선호하지 않는 감상 분야

	n	%
동요	42	22.1
한국 대중가요	2	1.1
<b>국악</b>	<b>93</b>	<b>48.9</b>
외국 대중가요	22	11.6
클래식	31	16.3
합계	190	100.0

이러 선택한 분야를 즐겨 듣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게 하여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동요 분야를 즐겨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42명 중 39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표 35>와 같이 ‘재미없어서’가 53.8%(21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유치해서’가 41.0%(16명), 세 번째로 ‘접할 기회가 없어서’가 5.2%(2명)로 응답하였다.

한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2명 중 1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재미없어서’로 응답하였다.

국악동요 분야를 즐겨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93명 중 82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재미없어서’가 59.8%(49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접할 기회가 없어서’가 23.2%(19명), 세 번째로 11.0%(9명)가 ‘어려워서’로 응답하였다.

외국 대중가요 분야를 즐겨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22명 중 18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언어가 달라서’가 72.2%(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재미없어서’가 16.7%(3명), 세 번째로 11.1%(2명)가 ‘잘 몰라서’로 응답하였다.

클래식 분야를 즐겨 듣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31명 중 25명의 학생이 그 이유를 서술하였는데 응답을 분류한 결과 ‘재미없어서’가 80.0%(20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잘 몰라서’, ‘어려워서’가 8.0%(2명), 세 번째로 4.0%(1명)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표 35> 선호하지 않는 이유

분야	이유	n	%
동요	<b>재미없어서</b>	<b>21</b>	<b>53.8</b>
	유치해서	16	41.0
	접할 기회가 없어서	2	5.2
	<b>합계</b>	<b>39</b>	<b>100</b>
한국 대중가요	<b>재미없어서</b>	<b>1</b>	<b>100.0</b>
	<b>합계</b>	<b>1</b>	<b>100</b>
국악	<b>재미없어서</b>	<b>49</b>	<b>59.8</b>
	접할 기회가 없어서	19	23.2
	어려워서	9	11.0
	잘 몰라서	3	3.6
	옛날 것이라서	2	2.4
	<b>합계</b>	<b>82</b>	<b>100</b>
외국 대중가요	재미없어서	3	16.7
	잘 몰라서	2	11.1
	<b>언어가 달라서</b>	<b>13</b>	<b>72.2</b>
	<b>합계</b>	<b>18</b>	<b>100</b>
클래식	<b>재미없어서</b>	<b>20</b>	<b>80.0</b>
	접할 기회가 없어서	1	4.0
	잘 몰라서	2	8.0
	어려워서	2	8.0
	<b>합계</b>	<b>25</b>	<b>100</b>
<b>합계</b>		<b>165</b>	

바. 감상곡 장르

가장 즐겨 듣는 가요 장르는 <표 36>과 같이 ‘댄스’가 41.6%(79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랩/힙합’ 24.2%(46명), 세 번째는 19.5%(37명) ‘발라드’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교차분석 해 보았을 때  $\chi^2$  값은 60.885, p 값은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70.1%(61명)가 ‘댄스’를 선택하여 가장 높았으며 ‘발라드’가 17.2%(15명)로 두 번째 응답률을 보였다. ‘댄스’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고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고루 낮았다. 반면 남학생은 36.9%(38명)가 ‘랩/힙합’을 선택하여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 21.4%(22명)가 ‘발라드’로 응답하였다. 댄스, 일렉, 트로트 장르 모두 10%이내의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표 36> 선호하는 감상곡 장르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가장 즐거 듣는 가요 장르	발라드	n	22	15	37	60.885	.000
		%	21.4	17.2	19.5		
	댄스	n	18	<b>61</b>	<b>79</b>		
		%	17.5	<b>70.1</b>	<b>41.6</b>		
	랩/힙합	n	<b>38</b>	8	46		
		%	<b>36.9</b>	9.2	24.2		
	록	n	3	0	3		
		%	2.9	.0	1.6		
	일렉 (전자음악)	n	12	2	14		
		%	11.7	2.3	7.4		
	트로트	n	10	1	11		
		%	9.7	1.1	5.8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 사. 감상 활동의 동기

언제 가장 음악을 듣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서 다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 <표 37>과 같이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21.2%(87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기쁠 때' 17.3%(71명), 세 번째는 12.2%(50명) '놀러 갔을 때'로 응답하였다. 휴대폰의 음악 감상 기능을 활용하면 이동하면서도 손쉽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 감상 활동의 동기

	n	%
기쁠 때	71	17.3
슬플 때	40	9.8
고민이 많을 때	46	11.2
독서나 공부를 할 때	48	11.7
운동을 할 때	44	10.7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15	3.7
<b>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b>	<b>87</b>	<b>21.2</b>
놀러 갔을 때	50	12.2
기타	9	2.2
합계	410	100

아. 공연 종류

음악 공연 감상의 기회가 생긴다면 보고 싶은 공연 종류를 묻는 질문에서 <표 38>과 같이 ‘가수 콘서트’가 73.7%(140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뮤지컬’ 11.1%(21명), 세 번째는 10.5%(20명) ‘클래식 음악회’로 응답하였다.

<표 38> 감상하고 싶은 음악 공연 종류

	n	%
뮤지컬	21	11.1
오페라	3	1.6
<b>가수 콘서트</b>	<b>140</b>	<b>73.7</b>
클래식 음악회(연주회, 성악공연 포함)	20	10.5
국악 공연(연주회, 판소리 공연 등)	4	2.1
기타	2	1.1
합계	190	100.0

자. 연간 음악 공연 관람 횟수

1년 중 평균 음악 공연 관람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표 39>과 같이 ‘전혀 가지 않는다’가 60.0%(114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보통이다(1-2회)’ 29.5%(56명), 세 번째는 10.5%(20명) ‘자주 간다(3회 이상)’로 응답하였다.

<표 39> 연간 음악 공연 관람 횟수

	n	%
<b>전혀 가지 않는다</b>	<b>114</b>	<b>60.0</b>
보통이다(1~2회)	56	29.5
자주 간다(3회 이상)	20	10.5
합계	190	100.0

‘자주 간다’로 응답한 20명의 학생을 제외한 17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공연에 자주 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표 40>과 같이 ‘시간이 없어서’가 29.4%(50명)로 가장 높고 두 번째는 ‘흥미가 없어서’ 24.1%(41명), 세 번째는 21.2%(36명) ‘언제 하는지 몰라서’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학업 등을 이유로 공연 관람 시간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흥미를 끌만한 공연이 부족하며 공연 관련 정보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 40> 음악 공연을 자주 관람하지 않는 이유

	n	%
흥미가 없어서	41	24.1
<b>시간이 없어서</b>	<b>50</b>	<b>29.4</b>
언제 하는지 몰라서	36	21.2
입장료가 비싸서	14	8.2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26	15.3
기타	3	1.8
합계	170	100

## 5. 창작 활동 선호도 및 실태

### 가. 창작 활동 참여 정도

창작 활동 참여 정도는 <표 41>와 같이 ‘전혀 안 한다’가 58.4%(111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거의 안 한다’ 21.6%(41명), 세 번째는 14.7%(28명) ‘보통이다’로 응답하였다.

<표 41> 창작 활동 참여 정도

	n	%
<b>전혀 안 한다</b>	<b>111</b>	<b>58.4</b>
거의 안 한다	41	21.6
보통이다	28	14.7
자주 한다	4	2.1
매우 자주 한다	6	3.2
합계	190	100

‘전혀 안 한다’와 ‘거의 안 한다’에 응답한 152명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표 42>와 같이 ‘흥미가 없어서’가 46.7%(71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가 ‘어려워서’ 42.1%(64명), 세 번째로 10.5%(16명)가 ‘기회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표 42>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n	%
<b>흥미가 없어서</b>	<b>71</b>	<b>46.7</b>
어려워서	64	42.1
기회가 없어서	16	10.5
기타	1	0.7
합계	152	100

#### 나. 창작 상황

선호하는 음악 만들기 상황은 <표43>과 같이 ‘혼자 음악 만들기’가 42.6%(81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음악 만들기’ 41.1%(78명), 세 번째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만들기’로 13.2%(25명)가 응답하였다.

<표 43> 선호하는 창작 상황

	n	%
<b>혼자 음악 만들기</b>	<b>81</b>	<b>42.6</b>
친구들과 함께 음악 만들기	78	41.1
학교 수업 시간에 음악 만들기	25	13.2
기타	6	3.1
합계	190	100

다. 창작 활동의 종류

어떤 음악 만들기 활동을 좋아하는지 묻는 질문에 <표 44>와 같이 ‘가사 짓기’가 45.3%(86명)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리듬 만들기’ 23.2%(44명), 세 번째는 21.1%(40명)로 ‘멜로디 만들기’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교차분석 해 보았을 때  $\chi^2$  값은 25.168, p 값은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은 52.9%(46명)가 ‘가사 짓기’를 선택하여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도 ‘가사 짓기’가 가장 높았으나 38.8%(40명)로 여학생보다는 수치가 낮았다. 또한 여학생은 ‘멜로디 만들기’가 31.0%(27명)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리듬 만들기’가 35.0%(36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남학생의 경우 리듬 만들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멜로디 만들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반면 여학생은 리듬 만들기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멜로디 만들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 선호하는 창작 활동의 종류

			성별		전체	$\chi^2$	p	
			남자	여자				
어떤 음악 만들기 활동을 가장 좋아하는 지	가사 짓기	n	40	46	86	25.168	.000	
		%	38.8	52.9	45.3			
	리듬 만들기	n	36	8	44			
		%	35.0	9.2	23.2			
	멜로디 만들기	n	13	27	40			
		%	12.6	31.0	21.1			
	반주 만들기	n	14	6	20			
		%	13.6	6.9	10.5			
	전체		n	103	87			190
			%	100.0	100.0			100.0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생의 음악 전반에 대한 호감도와 음악 활동별 선호도 및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초등학생의 음악 활동 시간, 동기, 선호 장르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한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활동별 흥미도 및 참여도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음악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재미있다’, ‘보통이다’, ‘재미없다’, ‘어렵다’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감상 활동은 95.8%, 가창 활동은 79.1%, 기악 활동은 71.6%, 창작 활동은 43.2%가 보통 이상의 흥미를 보여 창작 활동의 흥미도는 감상 활동 흥미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활동별 활동 시간을 조사한 질문에서도 감상의 경우 26.8%(51명)가 11-20분, 25.8%(49명)가 40분 이상 하루 평균 감상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58.4%(111명)의 학생이 창작 활동을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하여 창작과 감상 활동의 참여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음악 활동에 대한 흥미도 및 참여도 격차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음악 활동은 각자의 독보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가창 활동의 경우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기악 활동은 감정 표출을 통해 아동의 충동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며, 감상 활동은 신체의 이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창작 활동은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에 학생들은 균형 있는 음악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음악적 경험이 개인의 인생 전반의 음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들이 음악 활동에 균형 있게 참여하고 고른 선호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창 분야가 불균형을 이룬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창분야는 동요, 한국 대중가요, 국악동요, 외국 대중가요 중 한국 대중가

요(75.8%)로 선호도가 10%미만에 그친 국악동요(2.6%)와 동요(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최근 즐겨 부르거나 듣는 실제 곡에 대한 조사를 통해 훨씬 심각한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 학생들이 즐겨 부르거나 듣는 노래는 87.3%의 곡이 ‘한국 대중가요’, 11.5%가 ‘외국 대중가요’로 실제로는 98.8%가 대중가요 곡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악동요나 클래식 곡은 단 한 곡도 나오지 않아 지나치게 대중가요에 치우친 가창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정서와 발달을 고려해 만들어진 동요나, 음악적 예술성과 형식을 갖춘 클래식보다 학생들이 대중음악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락, 리듬, 음색을 갖춘 대중음악 자체의 특징<sup>42)</sup>과 더불어 학생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설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학생들은 새로운 가창곡을 ‘인터넷, tv 등 매체에서 노래를 듣고’(68.4%) 접하게 되는데 대중매체에서 들어주는 대중가요를 자주 접하여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중가요의 안에서도 특정 장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댄스’와 ‘랩/힙합’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았다. ‘댄스’ 장르에 대해서는 여학생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여학생 중 67.8%가 ‘댄스’ 장르를 선호하였다. 이는 댄스 음악을 위주로 하는 대중스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여학생의 특성<sup>43)</sup>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댄스’보다는 ‘랩/힙합’과 ‘발라드’의 선호도가 높았고 그 중 특히 ‘랩/힙합’의 선호도가 남학생 32.0%로 높았다.

셋째, 서양악기에 치우친 기악 활동을 보인다. 학생들은 ‘건반악기’(36.3%), ‘관악기’(22.1%), ‘현악기’(21.1%), ‘타악기’(20.5%)로 악기 종류에 대해서는 고른 선호를 보였다. 그러나 ‘서양악기’와 ‘동양악기’에 대해서는 ‘서양악기’에 대한 선호도 85.8%로 ‘동양악기’는 14.2%로 심한 격차를 보였다.

다룰 수 있는 악기를 3개 이하로 적도록 하여 실제 학생들이 다루는 악기를 알아본 결과에서도 ‘서양악기’가 91.6%, ‘동양악기’ 8.4%로 동양악기는 낮은 수치였다. 학생들이 다룰 수 있다고 응답한 동양악기를 살펴보면 장구 외 6종의

42) 박민영, “초등학생의 학교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7쪽.

43) 류영제, “청소년의 대중스타 이상화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5쪽.

악기가 등장하였는데 종류도 많지 않고 그 중 66.7%가 장구, 징, 북, 소고와 같은 무율 타악기였으며 유율 악기로는 단소, 소금과 같은 관악기(30.5%), 가야금과 같은 현악기(2.8%)가 등장해 유율 악기기는 33.3%에 그쳤다.

넷째, 학생들은 감상 활동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감상 활동에 대해 95.8%가 보통 이상의 흥미를 갖고 있고, 하루 평균 40분 이상 감상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25.8%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 학생들의 감상 실태를 정리해보면 학생들은 주로 혼자 음악을 감상하며 걷거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가장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 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감상하고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한국 대중가요, 그 중 신나고 빠른 댄스 음악을 주로 듣는다.

반면 학생들의 음악 공연 관람에 대한 경험은 매우 부족한데 연간 평균 음악 공연 관람 횟수는 '전혀 가지 않는다'가 60.0%로 음악 공연을 전혀 관람하지 않는 학생이 대다수였고 연간 1~2회에 그친 학생도 29.5%였다. 이와 같이 공연 관람 경험이 부족한 까닭으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흥미를 끌만한 공연 자체가 없으며 공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만약 음악 공연 감상의 기회가 생긴다면 학생들은 '가수 콘서트'(73.7%)를 가장 보고 싶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대중가요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창작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과 자신감이 부족하다. 창작 참여도에 대한 설문 결과 '전혀 안 한다'로 응답한 학생이 58.4%(111명), '거의 안 한다'로 응답한 학생이 21.6%(41명)으로 80.0%의 학생들이 창작 활동에 낮은 참여를 보였다. 창작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흥미가 없어서'(46.7%), '어려워서'(42.1%)로 나타났다. 수동적 듣기가 가능한 감상이나 주어진 노래를 표현하는 가창, 기악에 비해 음악적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독창성이 필요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창작 활동에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창작에 대한 긍정적 인상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 2. 제언

본 연구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J시 동지역 학생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학생들의 음악 선호도 차이 및 지역 간 음악 선호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보다 보편적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설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 분야가 불균형을 이루고 지나치게 대중가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 대중가요에 대한 선호가 학생들의 삶과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음악 활동 별 선호도 및 실태 조사 연구로 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각 음악 활동 실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음악 선호도를 반영한 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1. L. Swears. 『소년소녀합창지도법』, 이동훈 역. 서울: 동진출판사, 1998.
2.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8.
3. 방금주 외. 『음악 창작 아카데미』, 서울: 학지사, 2000.
4. 석문주 외.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6.
5. 송인섭 외.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7.
6. 유덕희. 『음악교육론』, 서울: 개문사, 1983.
7.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0.
8. 임미경 외. 『음악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벨로체, 2002.
9. 정현주 외.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2010.
10. Bently, A. 『Musical Ability in Children and its Measurement』, London: Harrap, 1996.
11. Abeles, H. F. “Response to music”, 『In Handbook of music psychology edited by Donald A.』, San Antonio: IMS Press, 1988.,

### 참고논문

1. 강연희. “음악감상이 유아기 감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 김미례. “초등학교 음악창작수업에서의 홀리스틱 교육이론 적용”,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3. 김용희. “음악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 창작 학습전략들”,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음악연구』 제37호, 2006.
4. 김태웅. “대구 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음악활동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5. 류경빈. “국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음악 선호도 및 활동 실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6. 류선균. “기악을 통한 초등음악교육”, 『부산여자전문대학논문집』 제19호, 1997.
7. 류영제. “청소년의 대중스타 이상화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8. 박민영. “초등학생의 학교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9. 서승미.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권 제2호, 2005.
10. 성시민.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지능 및 사회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1. 안은경.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 현장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 분석-국외 문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2. 임현정. “노래심리치료가 내재화된 정서 문제를 갖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13. 장선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음악양식에 대한 선호도”, 『교과교육학 연구』 8권 제2호, 2004.
14. 함희주. “가창학습지도를 위한 내용 및 방법”, 『음악과 민족』 제8호, 1994.
15. 홍승연. “한국과 미국 초등학교 가창 지도내용 비교”, 『이화음악논집』 18권 제2호, 2014.
16. 황은영.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따른 음악활동과 음악선호 조차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3권 제1호, 2012.
17. Baumann, V. H. “Teen-age music pre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8.
18. LeBlanc, A. “An interactive theory of music preferenc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19, 1982.
19. Peery, J. C. Peery, I. W., “Effects of exposure to Classical Music on the Musical Preferences of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o.34(1), 1986.

## A B S T R A C T

# A Study on Elementary Students' Preference And Actual Conditions Survey of Music Activities

-Focused on the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Kim, Ji Yeon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 Chi No

Music is a kind of art familiar to mankind all through the history. Humans have controlled, expressed, and relieved their feelings through music. It means that music plays crucial roles in stabilizing humans' emotion. Musical activity is particularly essential for children as they are in the period of upheaval physically as well as mentally. Music influences them positively in relieving stress and anxiety resulted from growing pain.

Children encounter music at school, academies, or home in various ways and select music and get to have preferences with their own value. However, since they are not capable of making a right choice and are poor at value judgment yet, they may end up having imbalanced music preferences strongly influenced by their parents, teachers, or the media. If children continue to prefer certain music in

a narrow perspective, they will grow up to be an adult not capable of enjoying various music cultures.

Therefore, this author is going to examine which music children prefer and the actual status of their music activity. The subjects are elementary school 6th graders. Children in this period indicate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physically and mentally and begin to form their music preferences genuinely. In order to examine the 6th graders' general preferences in music and their preferences and status of music activities, this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about the time to conduct each activity and their motivations and preferred genres, etc.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nt through cross tabulation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by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0. Cross tabulation analysis is performed to see if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ir preferred music activities, opinions about music activities, and the types, genres, or creation forms of preferred music by sex. Frequency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their musical interest, preferred music activities and instrument types, and devices they use for appreciation, and so on. Also, instruments they can play and their preferred songs went through frequency analysis as arranged in Excel 2007.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materials for music education and music programs considering children's musical preferences and provide desirable music opportunities for children in emotional confusion and instability. Through the chances, children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value and diversity of music and develop their sensitivity through music.





10. 최근 가장 즐겨 부르거나 듣는 노래의 제목을 3개만 써 주시오.  
 (즐거 부르는 노래가 없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0~2개만 적어도 됩니다. 노래 제목이나 가수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생각나는 가사만 적으셔도 됩니다.)

번호	노래 제목	가수
1		
2		
3		

11.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1개 이상 선택 가능)

- ① 기분이 좋아져서                      ② 심심함을 없애려고                      ③ 재미있어서  
 ④ 진로를 위해(음악 전공을 하기 위해)                      ⑤ 자신감 혹은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⑥ 선생님 혹은 부모님이 시켜서                      ⑦ 기타(                      )

### [악기 연주하기 활동]

1. 하루 평균 악기 연주하기를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고르시오.

(수업 시간, 악기 관련 동아리 활동 등 모든 악기 다루는 시간을 포함한다)

- ① 0 ~ 10분    ② 11 ~ 20분    ③ 21 ~ 30분    ④ 31 ~ 40분    ⑤ 40분 이상

2. 다음 중 악기 연주하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① 재미있다                      ② 보통이다                      ③ 재미없다.                      ④ 어렵다

3.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악기 종류를 고르시오.

- ① 타악기                      ② 현악기                      ③ 건반악기                      ④ 관악기

4. 다음 중 좋아하는 악기를 고르시오.

- ① 서양악기(플루트, 바이올린, 피아노 등)                      ② 국악기(장구, 가야금, 해금 등)

5.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악기 연주하기 상황을 고르시오.

- ① 혼자 있을 때 악기 연주하기
- ② 여가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악기 연주하기
- ③ 학교 수업 시간에 악기 연주하기
- ④ 교회 밴드, 학교 오케스트라 등 동아리에서 악기 연주하기
- ⑤ 학원에서 악기 연주하기
- ⑥ 가족 앞에서 혹은 가족과 함께 악기 연주하기
- ⑦ 기타( )

6. 다음 중 가장 좋아하는 악기 연주하기 형태를 고르시오.

- ① 독주(혼자 연주)      ② 중주(소규모로 함께 연주)      ③ 합주(대규모)

7. 주로 어떤 방법으로 악기를 배우게 되는지 고르시오.

- ① 스스로 인터넷에서 연주 동영상을 보고
- ② 친구나 선배의 가르침을 받고
- ③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 ④ 학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 ⑤ 기타( )

8. 다음 중 가장 즐겨 연주하는 음악 유형을 고르시오.

- ① 신나고 빠른 음악      ② 곱고 아름다운 음악
- ③ 슬프고 웅장한 음악      ④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
- ⑤ 노랫말이 재미있는 음악      ⑥ 기타( )

9.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악기를 3개만 적으시오.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다고 생각되면 0~2개만 적어도 된다. 다룰 수 있는 악기가 3개 이상이라면 그 중 잘하는 것 3개만 골라 적는다.)

--	--	--





